

방학 캠프 방식의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실험: 성과와 과제*

김다혜** · 김현경*** · 전제성****

국문초록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캠프는 2019년 여름에 시작되어 4년간 일곱 차례 개최되었다. 방학 중에 2주간 진행되는 언어캠프는 코로나19 대유행도 대면 수업으로 돌파하면서 여섯 개의 동남아언어(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에 더하여 아랍어와 터키어와 이탈리아어 교육도 제공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개 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활동가, 변호사, 기자 등 총 429명이 수강하였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답지하였고 상세한 소개 요청도 빈번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4년의 비상한 실험을 돌아보며 방학캠프 방식의 동남아언어교육의 필요성, 추진 과정, 성과 및 한계를 알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도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지역학, 교육, 특수외국어, 언어캠프,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

* 이 논문은 2022년 6월 30일에 온라인으로 배포된 전동연 이슈페이퍼 20호, “동남아언어캠프 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계획한다”의 자료와 기술을 대폭 보강한 결과이다.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1092544).

** 주저자. 전북대 정치학과 박사수료,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dahye1215@gmail.com

*** 공저자. 전북대 정치학과 박사수료,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mhdumo@gmail.com

**** 교신저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동남아연구소 소장, jjeseong@gmail.com

I. 서론

2019년 7월 15일 15개 대학 소속 93명이 전북대에서 만났다.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두 주에 걸쳐 열흘간 하루 다섯 시간씩 언어를 가르칠 7인의 강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배양수 교수가 이끄는 부산외국어대 특수외국어사업단의 비용으로 제공한 강사진이었다. 병행되는 지역이해 특강을 위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동남아연구자들도 자비로 도착했고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연사들도 이어서 당도할 예정이었다. 운영비를 지원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른바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캠프”(이하 언어캠프)가 시작된 것이다. 개최식은 “전부 함께 동남아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마쳤는데, “전부 함께”란 전주의 전북대(전)와 부산의 부산외대(부)가 연대하여 캠프를 마련한다는 뜻이자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캠프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리하여 여러 동남아 언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학캠프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출범한 것이다. 이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으나 엄격한 방역을 기하며 모든 캠프를 대면 수업으로 거행하였다. 4년간 일곱 차례의 캠프를 개최하여 40개 대학 소속 429명을 전면 무상 교육하였다.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시도여서 이해가 부족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애로를 겪었으나 4년의 실험을 거치며 일정한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고 좋은 평가도 받게 되었다. 언어캠프는 전북대의 정부재정지원사업성과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도 전북대의 대표사업으로 추천되었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민체감형 연구성과”를 달성한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언어캠프 수행 업적도 한 몫 했다.¹⁾ 언

론 보도가 다수 이루어져 세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러 문의가 이어졌다. 이제는 언어캠프를 돌아보며 다음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언어캠프의 배경, 추진, 성과와 과제를 밝히는 논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필진들은 창설부터 지금까지 함께 캠프를 책임진 이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직접적 경험을 성찰한 결과로서 장점과 단점을 지닌다. 내밀한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는 장점을 살리되, 성과뿐만 아니라 한계를 솔직히 밝히고 많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성적 해석을 뒷받침할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한 결과, 표가 상당히 많은 논문이 되었다.

우리의 실험 경험을 성찰하고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다. 국내 대학에서 희소한 동남아언어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를 밝힌 연구들(전제성·이재현 2008; 하채균 2018; 전제성·박사명·김현경 2021)은 캠프의 창설 배경을 논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었으나, 그런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사례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관련 연구는 스와힐리어 학부과정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논문 한 편뿐이었다(박정경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략적 관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결된 세 건의 연구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먼저 미국사회과학위원회 동남아연구분과가 1999년에 두 차례의 뉴욕 회의 결과를 기록한 프로시딩은 언어교육과 학문후속세대육성 전략에 관한 미국 동남아연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Southeast Asian

1) 한국연구재단.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사람을 중심에 둔 동남아 지역연구, 함께 걷다.” https://nrf.re.kr/cms/board/cardnews/view?menu_no=369&nts_no=195928 (검색일: 2023/05/11)

Program,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00). 이어서 한국의 지역연구를 대표하던 학자들이 13년 전에 해외지역연구 지원과 연구인력 양성 방안을 고민하면서 미국식 외국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안한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었다(이성형 외 2010: 48-52). 특히 보고서의 부록은 미국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사례 소개를 담고 있었다(신윤희 2010: 157-163). 미국동남아언어여름학교에 대한 더욱 상세한 소개는 이 여름학교를 유치 운영하는 위스컨신매디슨대학 소속 동남아연구자(정은숙 2023)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본 논문의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언어캠프 창설 과정에서 참조한 모델이 바로 동남아언어여름학교였기 때문에 한국의 실험을 미국의 선례에 자주 비추어보게 되었다. 이렇게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는 비교방법은 언어캠프의 한계와 과제를 판단할 때 긴요한 간파를 제공하였다.

본문은 캠프 창설 배경, 추진, 성과, 과제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2절은 배경 설명으로 국내 대학의 동남아언어 교육 문제와 해법들이 논의될 것이다. 동남아언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의 희소성과 편중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과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중요성과 한계, 대안으로서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 모델을 거론한다. 3절은 추진 과정을 밝힌 것으로 언어캠프의 설계, 진행방식, 캠프별 개황, 추진 과정의 애로 등을 소개한다. 4절에서 캠프의 성과로서 수강생과 소속 대학의 수, 수료생의 수와 분포, 만족도 조사결과가 검토된다. 5절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미국 여름학교와 한국의 언어캠프를 비교분석한다.

II. 배경: 대학의 외국어 교육 문제와 해법들

(1) 국내 대학의 외국어(동남아언어) 교육 문제

[표 1] 국내 대학의 동남아 언어 교과목 개설 현황

대학	개설 전공	강좌 수	소재지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언어문명*	7	수도권 (서울, 용인)	
	교양과정(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2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9
		베트남어		18
		태국어		33
	글로벌 캠퍼스	교양과정(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2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39
글로벌 캠퍼스	태국어통번역학과	36		
사이버한국외국어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40		
서울시립대	교양과정(베트남어)	1		
부산외국어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	19	부산	
	베트남어	21		
	태국어	20		
	미얀마어	15		
영산대	글로벌학부 한·베트남통역전공	20		
부경대	국제지역학부(베트남어)	4		
	교양과정(베트남어)	1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20	충남·대전	
	교양과정(베트남어 초급, 중급)	2		
청운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베트남비즈니스전공	21		
한남대	베트남지역학연계전공	5		
영남대	교양과정(베트남어)	2	경북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1. “2021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검색일: 2022/03/15)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 (검색일: 2022/03/17)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개, 베트남어 2개, 태국어 3개 과목.

** 베트남어 21개, 인도네시아어 19개 과목.

이미 13년 전에 국내 외국어 교육은 공급자 위주 교육이어서 사회적 수요를 무시하고 있고, 서구와 강대국 언어 중심이고, 소수민족언

어 교육이 부재하며, 제3세계 언어 교육이 일부 외국어대학에 국한되고 있어 대안적 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신윤환 2010: 159). 이런 상황은 큰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언어교육에 국한하자면 서울대에서 전공(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교양 선택 과목들을 개설했고, 일부 지역의 사립대에서 베트남어를 위주로 전공이나 강좌를 신설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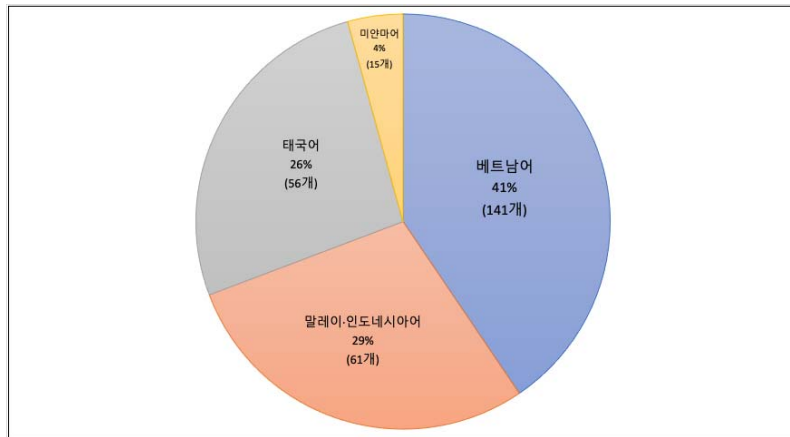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공시된 자료를 검토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동남아 언어 강좌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은 9개(한국외국어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단국대, 영산대, 청운대, 서울대, 부경대, 한남대)에 불과하고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을 더하더라도 11개 학교에 불과했다(표 1). 여기서 국공립대는 3개 교뿐이어서 국공립대가 국가적·지방적 수요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남아언어강좌를 개설한 대학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용인)에 4개, 부산에 3개, 충남·대전권에 3개, 경북에 1개 대학이며, 강원, 충북, 제주, 전남, 전북의 대학들은 어떠한 동남아언어 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어 2과목만 개설되어 있을 뿐인 경북의 경우도 동남아언어 고등교육의 소외지역에 포함시키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지역 편중 문제와 함께 언어 편중 문제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베트남어 과목이 대학의 동남아언어 과목의 약 41%를 차지한다(그림 1). 동남아지역학 관련 전공이 존재하는 9개의 대학 중 5개가 베트남어에 특화된 전공이다. 나머지를 말레이인도네시아어(29%)와 태국어(26%)가 양분한다. 부산외대만 교육하는 미얀마어는 가장 적은 비중(4%)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대학도 강좌를 안정적으로 개

설한 적이 없는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라오스어(라오어)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동남아 언어별 대학 교과목 분포



(2) 비교과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인근대학에서 청강조차 할 수 없는 동남아언어교육 부재 지역에서는 비정규적인 방식이 고안되어야 했다. 전북대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동남아언어교육을 시도한 사례에 해당된다. 전북대에서 동남아언어교육은 인도네시아연구자가 정치외교학과에 교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자원봉사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정치외교학과 주관으로 ‘서바이벌 바하사(인도네시아어)’ 교육을 제공하여 매학기 1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전북대신문 2010/04/14).

이어서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고 고고문화인류학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다문화융·복합연계전공 창설안으로 교육부 주관 ACE

(학부교육선진화지원)사업을 수주하자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어와 함께 베트남어도 무료 강의로 운영하게 되었다.²⁾ 강사로 투입된 유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소액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언어 교육을 제공하긴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워서 인도네시아연구로 석사나 박사를 마친 학생들도 배출되었다(김현경 2013; 정정훈 2017).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 경제학부가 협력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CK(창조한국) 국제화사업계획이 2014년에 선정되고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되자 동남아언어 강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로 언어연수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³⁾ 덕분에 2018년까지 연인원 3백여 전북대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었다.

전북대의 실험은 대학에서 정규 교과로 개설되지 않는 외국어 교육도 의지와 수요가 있다면 비교과 방식으로 교육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런데 비교과 프로그램 방식과 교육부의 한시적인 지원 사업에 의존하여 시행할 때 불연속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던 ACE와 CK사업이 모두 2019년 2월 말로 만료되자 전북대에서 동남아언어교육이 다시 자원봉사형 교육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일부 동남아 언어를 유료 시민강좌 형식으로 개설하였다. 주 1회 1시간 40분씩 총 12주간 진행하는 이 강좌는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강의는 수도권의 직장인들과 대학원생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주요 동남아언어를 대면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2)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융·복합연계전공. <https://eams.jbnu.ac.kr/eams/index.do>.

3) 전북대 CK-1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양성사업단. https://www.facebook.com/jbnuck/?locale=ko_KR

집중교육 방식은 아니고 지방에서 참여하기 어렵고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북대 캠프 운영자들은 자비를 들여 동남아언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전북대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전북대 언어교육원에서 유료로 베트남어를 개설했으나 수강생 모집 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3) 정부 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무역과 외교로 존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의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 2016년 2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8월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특수외국어”(critical foreign language)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정부는 특수외국어의 범위에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라오스어, 타갈로그어 등 8개 동남아언어를 포함시켰다. 제1차 5개년(2017-2021) 사업에서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태국어를 포함하는 15개 중점언어를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였고, 2차 5개년(2022-2026) 사업에 라오스어가 신규 중점언어로 추가되었다(국립국제교육원 2017, 2021, 2022).

정부는 “권역별 우수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기관이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특수외국어교육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동남아언어별 교육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를 부산외대와 한국외대가, 베트남어는 부산외대와 청운대가,

미얀마어와 크메르어는 부산외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대학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생과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포괄하여 언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사업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들이 특수외국어교육에서도 여전히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가장 많은 동남아언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외대 특수외국어교육사업단은 교육 준비 중심의 첫 해를 보낸 뒤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외부의 아세안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민강좌를 열며 적극적인 교육 확산을 시도하였으나 지리적 범위가 부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4) 미국식 집중교육 모델

한국의 지역연구 학계, 특히 동남아학계는 현지어 교육과 관련된 해법을 오래전부터 건의해 왔다. 그 해법은 미국식 집중교육 모델, 즉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 모델의 도입이었다(대표적으로 이성형·송주명·신윤환 2010). 동남아언어여름학교는 미국 동남아연구의 “품질보증서”(hallmarks)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동남아연구자들 사이에 중시되었다(Southeast Asian Program 2000: 36). 세계적으로 저명한 동남아연구자 제임스 스캇(James Scott)은 다음과 같이 동남아언어여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미국 동남아학계: 인용자)의 가장 걸출한 집단적 산물(our most magnificent collective creation)은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이다. 그것은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각지에서

은 대학원생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전국적 회합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 동남아언어여름학교의 구축과 지지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에 필수적인 것이다.”(Southeast Asia Council 2000: 30)

미국에서 동남아언어여름학교는 13개 대학이 협력하여 1983년도에 설립되었다. 여름방학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8주 동안 평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듣고 8학점을 이수한다. 동남아 각국의 국어뿐만 아니라 자바어와 몽어같은 주요 종족 언어도 배울 수 있다. 두 학기 학습 분량을 8주에 이수하므로 집중적인(intensive) 학습 방식이며 기숙형 학교이므로 오후와 주말에 다양한 지역학 프로그램을 접하고 학생들끼리 친분도 쌓을 수 있다. 미국에서 동남아 언어여름학교는 지난 40년간 여름마다 중단 없이 개최되면서 수많은 동남아연구자들을 교육시켰고, 남아시아언어여름학교나 러시아 언어여름학교 형성에도 영향을 준 모델이다(정은숙 2023: 7-10). 미국의 동남아학계가 집단적 노력을 통해 동남아언어여름학교를 창설해야만 했던 상황은 마치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다.

“미국의 대학 수에 비해 동남아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교들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또한 동남아 연구에 관심을 보였지만 모든 동남아 언어를 동시에 제공(교육, 인용자)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대학교는 없었다. ... 한 대학에서 모든 동남아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수진, 학생 수요, 도서 관련 자료, 언어 전문가 등 기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동남아 언어를 여름방학 동안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씨앗 모델은 학생들이나 교수진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해 준다.”(정은숙 2023: 5)

미국처럼 한국도 한 대학에서 모든 동남아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긴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동남아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의 대학이나 한 지역에서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남아 3대 수요 언어인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이외의 나머지 언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강사도 희소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때만 강좌가 개설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식 모델의 한국 도입이 상상되고 촉구되었던 것이다.

Ⅲ. 추진: 집중 교육 모델의 설계와 실험

(1) 설계에서 출범까지

국내 대학의 동남아언어 집중교육 설계는 2019년 7월 중순에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여름캠프’라는 명칭으로 처음 구현되었다. 캠프의 초안은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 사무실에서 단장 배양수 교수, 태국전공 김홍구 교수, 전북대 전제성 교수가 만나서 논의한 결과로 마련되었다. 베트남 연구자, 태국 연구자,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협의하여 영남의 부산외대와 호남의 전북대가 협력하는 동남아언어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를 2주간 50시간 집중 교육한다는 계획이고, 언어별로 5명 이상이면 개설하고 한 반에 25명을 넘지 않기로 했다. 초급반에 이어 중급반까지 교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부산외대가 강사진과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북대가 수강생을 모집 관리하고 캠프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전북대 운영비는 첫째는 대학혁신사업, 이듬해부터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충당되었다.⁴⁾

전북대 여름캠프를 추진할 때 미국 모델 SEASSI를 염두에 두고

영어 이름을 SEASK(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School in Korea)로 지었다. 여름캠프만이 아니라 겨울캠프도 이어지며 ‘여름’(Summer)이란 말은 사라지게 되었다. 처음부터 방학캠프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따라서 추진주체도 전국적으로 형성되어야 했고 16개 대학 20개 교육과정 소속 교원을 모아 ‘동남아언어캠프를 위한 한국대학연합’(UNSEASK: University Network for SEASK, 이하 UNSEASK)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조직했다.⁵⁾

첫 캠프의 베트남어 강사로 이은정, 구분석 선생, 인도네시아어 강사로 장상경, 최신영 선생, 캄보디아어 강사로 정연창, 미얀마어 강사로 강민지, 태국어 강사로 Patcharapan Katakool과 김홍구 선생이 배정되었다. 이후 캠프마다 강사의 변화가 있었다. 미국처럼 동남아 관련 학술강연과 문화행사를 겸하는 캠프로 만들고자 했다. 강연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재능기부를 호소했다.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강희정 소장, 김종호 교수, 백용훈 박사의 무료 강연(해상실크로드, 싱가포르의 탄생, 베트남의 남과 북)을 제공했고, 채수홍 교수의 서울대 VIP진출기업현지화지원사업단은 엄은희, 이지혁, 육수현 박사

4) 캠프 창설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계되고 다양한 사연이 있었는데, 이는 전동연 이슈 페이지 20호 7-9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 UNSEASK 초대 위원은 전제성 교수와 배양수 단장 외에 오명석, 채수홍, 지은숙(서울대 인류학과), 여운경(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강희정, 김종호(서강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서보경(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형중(연세대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신재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충열(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손혁상(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용균(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과), 김형준(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황인원(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정연식, 서지원(강원대 국제관계학과), 정범모(부경대 국제지역학부), 홍석준(목포대 문화인류학과), 이종하(조선대 무역학과), 김재관(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양현(전남대 철학과, 인문대학장), 전대성(전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포함되었다. 캠프가 계속되면서 참여 교원도 늘어났다. 오윤아(서울대 국제대학원), 이병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이선호(한남대 경제학과), 이수연(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이진영(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백용훈(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임상현(경희대 공동대학원) 교수 등이 가세하면서, 전북대와 부산외대를 포함하면 22개 대학의 28개 교육과정 및 3개 연구기관 소속 교원들도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한다.

의 무료 강연(매콩, 이슬람 경제, 호치민)뿐만 아니라 개회 만찬까지 제공해주었다. 베트남연구 인류학자 육수현은 자신이 대표인 북카페 놀지에서 ‘대학원생의 밤’을 개최하고 일부 특강과 영화 상영을 분담해주었다. 덕분에 부대행사가 매일 이어지는 캠프의 기획과 실현이 가능했다. 준비에서 실현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었는데, 전북대 석사과정생 한 명(전도인)만 극소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실무를 돕는 박사과정생들(김다혜, 김현경, 박현진)은 보수 없이 봉사했다.

(2) 일곱 차례 캠프의 전개와 진화

지극히 실험적이며 봉사정신으로 충만했었던 2019년 첫 캠프를 포함하여 4년간 총 일곱 차례의 캠프가 전북대와 부산외대에서 성사되었다. 첫 번째 캠프 이후 네 번의 캠프는 모두 코로나19 발발과 확산 상황에서 개최되었지만 모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엔 여름캠프만 열렸지만 다른 해는 여름과 겨울 모두 캠프가 개최되었다. 4년간 부산외대 측에서 약 2억 2백만 원, 전북대 측에서 4천5백만 원, 도합 2억 4천7백만 원을 투여하였다. 2022년 겨울캠프의 경우 6천2백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참가자 수로 나누면 1인당 교육비가 1백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표 2>는 일곱 번의 캠프 추진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2022년 여름캠프 때 필리핀어가 온라인 강의로 처음 개설되었는데, 부산외국어대 아세안연구원(원장 김동엽 교수)의 후원 덕분이었다.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의 제안으로 동남아 이외 지역의 언어 강좌들도 추가되었다. 2021년 겨울캠프 때 힌디어(인도어) 강의를 개설코자 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열릴 수 없었고 터키어는 개설되

[표 2] 언어캠프 개최 현황, 2019-2022년

시기	장소(숙박)	구성
2019년 여름 (07.15.~26)	전북대	- 5개 언어 7개 반: 베트남어(2개),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초 급반,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이하 인도네시아어) 초급 및 중급반 - 동남아특강 7회, 동남아영화상영회 3회 - 대학원생의 밤
2019년 겨울 (02.03.~14)	전북대	- 2개 언어 2개 반: 아랍어, 터키어 초급반
2020년 여름 (08.03.~14)	부산외대 (기숙사 2인1실 제공)	- 5개 언어 8개 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초급 및 중급반, 미얀마어, 아랍어 초급반 - 동남아특강 3회, 대학원진학설명회 2건
2021년 여름 (07.12.~23)	전북대 (기숙사비 일부지원)	- 4개 언어 4개 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초급반 - 동남아특강 5회, 대학원진학설명회 2건
2021년 겨울 (12.27.~ 2022.01.07)	부산외대 (기숙사 1인1실 제공)	- 5개 언어 7개 분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초급반 및 중급반, 태국어 중급반, 미얀마어, 아랍어 초급반. - 동남아특강 4회, 대학원진학설명회 2건
2022년 여름 (07.18 ~ 29)	전북대 (타지 수강생 기숙사 제공)	- 6개 언어 6개 분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탈리 아어 초급반, 필리핀어(온라인) 초급반 - 동남아특강 3회, 대학원진학설명회 2건 - 분반별 수강생 교류의 날 진행
2022년 겨울 (12.26 ~ 2023.01.06.)	부산외대 (기숙사 1인1실 제공)	- 5개 언어 8개 분반: 베트남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초급반 및 중급반,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중급반. - 동남아특강 3회

였으나 소수여서 다음해부터는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캠프 때 추
가된 아랍어는 수강생이 많아 이후 캠프 때도 계속 개설되었다. 아랍어
는 동남아의 무슬림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동남아의 이슬람을 연구하려
는 이들에게도 유익하니 동남아언어캠프에서 교육해도 된다고 생각했

다. 이리하여 동남아언어캠프와 함께 아시아특수언어캠프라는 명칭이 혼용되기 시작했다(이인모 2022). 2022년 여름부터 이탈리아어가 추가 개설되었는데,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 겨울방학 때도 개설되었다. 그래서 종종 혼용되던 ‘특수외국어캠프’라는 이름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 동남아언어캠프라는 명칭의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이들은 이 캠프를 ‘동남아언어+(플러스)캠프’라는 절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캠프가 직면한 심각한 장애였다. 두 번째 캠프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처음 나온 2월 초에 개최되었기에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수강 취소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 지침은 그 이후 모든 캠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2020년 여름캠프는 국제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였고 정부 방역지침도 강화된 상태여서 화상 강의 전환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배양수 단장은 ‘철저한 방역 속의 대면 캠프 개최’라는 결단을 내린다. 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 근거한 것이다. 철저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수강생 전원을 부산외대 기숙사에 투숙시키는 방식으로 캠프를 추진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신청자가 줄었지만, 전국 각지의 15개 대학 소속원 87명이 참여를 결행하였다. 다행히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이 무사히 캠프를 완수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개최된 2021년 전북대 여름캠프는 수강신청자가 가장 적었다. 오전 수업 후에 모든 강의실을 소독해야 했기에 점심시간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었으며 참여자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켜야 했고, 학생들의 협조 덕분에 감염자 없이 무사히 캠프를 마칠 수 있었다. 부산외대에서 개최한 2021년 겨울캠프 때는 방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에게 기숙사 독방이 제공되었다. 2022년 여름캠프 때 전북대가 타지 학생들에게 기숙사

를 제공하였고, 2022년 겨울캠프 때도 부산외대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는 캠프 추진의 큰 장애였으나 기숙형 캠프 전환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캠프에게 준 ‘선물’이었다.

IV. 성과: 수강생, 수료생, 만족도 분석

(1) 수강생 429명

지난 4년간 일곱 차례 캠프를 통해 연인원 429명에게 특수외국어 교육과 동남아 지역 이해 강연이 제공되었다. 수강생들의 다수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었지만, 연구원, 교수, 활동가, 변호사, 기자, 다문화센터 직원, 고교 졸업반 학생들도 수강했다. 언어캠프를 개최하면서 동남아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매우 다양한 분과에 걸쳐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9년 첫 캠프 때 수강을 신청한 전북대 학생들의 경우, 인문대학(인류학, 영문학, 프랑스아프리카학, 철학, 스페인중남미학, 독일학, 문헌정보학, 국문학, 사학),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환경과학, 산림환경과학, 농경제학), 상과대학(무역학, 경제학), 공과대학(소프트웨어학, 신소재학, 고분자나노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글러벌프론티어칼리지(국제인문학부),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등 수강신청자들의 소속이 실로 다양하였다.

캠프별 수강생 분포를 <표 3>에 정리하였다. 첫 캠프 때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 가장 길게 모집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었다는 시기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동남아언어가 개설되지 않았던 2019 겨울캠프를 예외로 삼으면, 한국에서 코로나19

의 감염자 수의 증감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정책 변화라는 외적 요인에 따라 캠프 참여자 수가 증감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한 언어 강좌 수에 따른 영향도 있어서 초급반만 개설되었던 2021년 여름캠프 때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3] 캠프별 언어반별 연도별 수강생

수준별	언어분반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2022 여름	2022 겨울	계
초급	베트남어	35	-	34	13	8	9	10	109
	인도네시아어	21	-	14	16	18	9	-	78
	태국어	16	-	12	9	-	5	-	42
	미얀마어	6	-	6	-	3	-	-	15
	캄보디아어	6	-	-	-	-	-	-	6
	필리핀어	-	-	-	-	-	13	-	13
	아랍어	-	9	7	9	11	8	10	54
	이탈리아어	-	-	-	-	-	19	16	35
터키어	-	3	-	-	-	-	-	3	
중급	인도네시아어	9	-	4	-	8	-	8	29
	베트남어	-	-	7	-	7	-	3	17
	태국어	-	-	3	-	7	-	5	15
	아랍어	-	-	-	-	-	-	5	5
	이탈리아어	-	-	-	-	-	-	8	8
합계	93	12	87	47	62	63	65	429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언어는 베트남어로서 4년간 126명이 수강하였다.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어로 107명이 수강하였고, 세 번째는 아랍어로 59명이 수강하였다. 이어서 태국어(57명), 이탈리아어(43명), 미얀마어(15명), 필리핀어(13명), 캄보디아어(6명), 터키어(3명)

순이었다. 캄보디아어와 터키어의 경우 신청자가 적어 한 회씩만 개설되었다. 동남아언어에 국한해 볼 때 수강생의 순위는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무역 순위(한-아세안센터 2022: xi)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초급반뿐만 아니라 중급반까지 개설될 수 있었던 언어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탈리아어이다. 초급 최다 수강 언어는 베트남어였으나 중급 최다 수강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였다. 인도네시아어는 중급반이 네 번 개설될 수 있었지만 베트남어 중급반은 세 번만 개설될 수 있었다.

[표 4] 수강 신청 동기(%)

항목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2022 여름	2023 겨울	평균
다문화 소양 함양	28.3	40.5	55.4	40.4	48.9	45.3	55.7	43.2
국제 이해 증진	16.7	21.4	56.4	41.6	54.3	41.5	60.0	38.6
취업 역량 강화	16.7	16.7	32.7	23.6	37.2	25.5	39.1	25.4
현지 파견	20.0	14.3	22.8	18.0	21.3	17.9	18.3	19.0
직무상 필요	1.7	0.0	0.0	11.2	12.8	17.9	11.3	7.3
학위논문 작성	10.0	0.0	1.0	9.0	3.2	1.9	3.5	4.2
대학원 진학	1.60	0.0	0.0	3.4	0.0	0.0	2.6	0.8
기타*	5.0	7.1	4.0	5.6	6.4	4.7	7.8	5.5

주의: 2020년 이후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선교”, “언어학습”, “관심”, “흥미” 등이라 직접 적은 경우들.

수강 신청 동기는 주로 ‘다문화 소양 함양’과 ‘국제 이해 증진’이었다. 이 두 가지는 지난 4년간 다른 수강 동기 항목보다 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동기를 하나만 선택하게 했던 2019년의 경우는 ‘다문화 소양 함양’ 동기가 ‘국제 이해 증진’ 동기를 큰 폭으로 앞섰으나, 복수선택을 가능케 한 2020년부터는 ‘국제 이해 증진’ 동기가 ‘다문화 소양 함양’ 동기를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취업 역량 강화’, ‘현지 파견’, ‘직무상 필요’, ‘학위논문 작성’, ‘대학원

진학', '기타' 순이었다. '직무상 필요' 동기 비율이 2021년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자나 활동가 같은 성인들의 참여 비중 증가에 비례한 결과로 해석된다.

(2) 40개 대학 소속원의 참여

캠프 수강생의 소속 대학은 40개에 달했다. 4년 합계로 볼 때 전북대 소속 수강생은 47%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캠프마다 타대학 학생들도 참여하였다. 2021 겨울캠프와 2022년 여름캠프가 참가자 소속이 17개 대학으로 가장 다양했던 캠프로 기록되었다. 첫 캠프 때는 UNSEASK 교원 소속 대학의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밖에 다른 대학의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표 5>는 대학별 수강생 수를 정리한 것이다. 전북대에 이어서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순으로 수강생이 많았다. 이 대학들은 일부 수강생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속한다. 전북대 학생들은 부산외대 캠프에 참여할 때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교통비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서울대 인류학과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BK (Brain Korea)21 사업으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에임스(AIMS: 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사업의 일환으로 캠프 참여 자교 학생들에게 여비나 숙박비를 지원하였다.

[표 5] 참여 학교 별 수강생

참여자 소속 학교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2022 여름	2022 겨울	합계
전북대*	60	9	33	36	10	26	29	203
서울대*	4	-	14	1	4	5	4	32
서강대*	3	-	5	1	7	2	1	19
연세대*	8	-	1	-	7	-	-	16

방학 캠프 방식의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실험: 성과와 과제 51

조선대*	2	-	10	-	-	4	-	16
성공회대*	1	-	-	1	5	-	-	7
한국외대	1	-	1	-	5	1	-	8
강원대*	-	-	3	-	2	5	1	11
경희대*	2	-	3	-	-	1	1	7
창원대*	3	-	2	-	-	-	-	5
고려대*	1	-	2	1	-	-	-	4
부산외대*	-	-	-	2	2	2	15	21
동국대	-	-	-	-	2	-	-	2
목포대*	1	-	1	-	-	-	-	2
부경대*	-	-	1	-	1	3	-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2	-	-	-	-	2
KDI국제정책대학원	-	-	-	-	1	-	-	1
경상대*	1	-	-	-	-	-	-	1
국민대	-	-	-	-	1	-	-	1
국방대*	-	-	-	1	-	-	-	1
단국대*	-	-	-	-	-	1	5	6
부산가톨릭대	-	-	-	-	1	-	-	1
원광대	-	-	1	-	-	-	-	1
인천대	-	-	-	-	1	-	-	1
인하대	-	-	-	-	-	1	-	1
전남대*	-	-	-	-	1	1	-	2
전주대*	1	1	-	-	-	-	-	2
우석대	-	-	-	-	-	-	1	1
중앙대	-	-	-	-	1	-	-	1
충북대	-	-	-	1	-	-	-	1
한국방통대	-	-	-	-	1	-	-	1
호원대	-	-	1	-	-	-	-	1
경희사이버대학교	-	-	-	-	-	1	-	1
사이버한국외대	-	-	-	-	-	-	1	1
신한대학교	-	-	-	-	-	1	-	1
유한대학교	-	-	-	-	-	1	-	1
한동대학교	-	-	-	-	-	-	1	1
University of Manchester	1	-	-	-	-	-	-	1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	-	-	-	-	-	-	1
University of Washington	-	-	-	-	-	1	-	1
전주술내고등학교	-	-	-	-	6	-	-	6
일반인	3	2	7	3	4	7	6	32
합계	93	12	87	50	62	63	65	429
참여 대학수	15	2	15	9	17	17	10	40

* UNSEASK 소속 대학

(3) 높은 수료 비율과 수료생들의 성취

캠프 수료 기준(80% 이상 출석 및 테스트 등)을 충족하여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 비율이 캠프 2년차부터 90%를 넘어섰고 4년간 수료생이 380명에 달했다(표 6). 수료생은 캠프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이다. 그래서 캠프 수료식마다 한 명씩 호명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고 반별로 기념 촬영을 한다. 시행착오가 많았던 첫 해의 캠프들에서 수료 비율이 낮았으나 두 번째 해인 2020년 여름 캠프 이후부터 90% 이상이 유지되었다.

[표 6] 수료자 및 수료율

년도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2022 여름	2022 겨울	합계/ 평균
수료자(명)	73	9	80	43	57	57	61	380
수료율(%)	78.5	72.2	92.0	91.5	91.9	90.5	93.8	87.2

수료율이 가장 높았던 캠프는 2022년 겨울이었고 그 다음이 2020년 여름이었다. 이 두 캠프의 공통점은 장소가 부산외대였고 기숙사를 제공하여 캠프라는 명목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점이었다. 전체적으로 초급반 수료율(88.7%)이 중급반(88.1%)보다 약간 높았다.

언어별 수료율은 <표 7>에서 보이듯이 캄보디아어(100%)가 가장 높고 터키어(72.2%)가 가장 낮다. 그런데 이 두 언어는 한 회만 개설 되었기에 여러 차례 개설된 언어들과 그대로 비교하긴 어렵다. 3회 이상 개설 된 언어 중에 수료율 평균이 가장 높은 언어는 태국어(93.6%)였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어(90.9%), 아랍어(86.2%), 미얀마어(83.4%) 순이었고, 동남아언어 가운데 가장 쉽다고 알려진 인도네시아어(83.1%)의 평균 수료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온라인 강의로 한차례 진행했던 필리핀어의 경우 92.0%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언어별 수료자 및 평균 수료율

언어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수료자(명)	115	88	53	13	6	12	54	37	2
수료율(%)	90.9	83.1	93.6	83.4	100	92.0	86.2	91.8	72.2

수료생들의 도전이나 성취는 주최 측에 큰 기쁨을 선사한다. 2019년 여름캠프 캄보디아어반 우춘희 수료생은 캄보디아 현지조사와 한국 농촌 현장연구를 거쳐 국내 이주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기록한 도서 『갯잎 투쟁기』(우춘희 2022)를 발간한 뒤에 잊지 않고 연구소로 책을 보내주었다. 미얀마어를 수료한 성공회대 김연우 수료생도 메콩강 개발과 라오스 댐 이야기를 담은 공저 『강을 잃어버릴 우리에게』(김연우 외 2020)를 발간하고 사진전까지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태국어반을 수료한 서강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의 송제 학생은 태국 사원 벽화에 관한 희소한 석사 논문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송제 2021), 언어캠프가 개최될 때마다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고 있다. 베트남어를 수료한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김정민 학생이 코로나19에 길이 막혀 못나가던 현지조사를 드디어 떠난다는 소식, 인도네시

아어 중급반을 수료하고 모든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강철의 수강생’ 상을 받은 전북대 김진오 인류학 박사수료생이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족자카르타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무사히 귀환했다는 소식, 미얀마어를 수료한 전북대 이우철 학생이 언어캠프 참여가 인연이 되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에 취업했다는 소식 등은 모두 주최 측도 성취감을 공유하는 기쁜 소식들이었다.

(4) 높은 만족도

캠프가 끝날 때마다 수강생 만족도 자체조사를 각기 실시하여 언어캠프 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전북대 측의 조사는 수료 이후 1주나 2주에 걸쳐 이메일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택형 질문으로, 언어 교육 수준과 방법, 교재의 적절성, 전체 강의 시간, 하루 강의 시간, 본인 언어능력 신장, 다음번 강의 참여 희망 등이 포함되었고, 개방형 질문으로 불만족스러운 사항,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점, 개선해야 될 사항 등을 물었다. 캠프별 수강생 만족도는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57점이고, 첫 언어캠프였던 2019년 전북대 여름캠프의 만족도가 4.06으로 가장 낮았고, 최근의 캠프에 이룰수록 만족도가 상향하여 2022년에는 4.7 이상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세부 문항별로 보자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들이 있다. 6개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하루 강의 시간’이었다. 총 강의시간과 마찬가지로 2019년 여름에 하루 강의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2021년 동계 강의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9년 하루 강의 시간은 5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루 강의 시간에 관한 척도 선택 문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형 서술 문항에서도 하루 강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하루 강의를 4시간으로 조정하였더니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2021년 동계에는 학점교류와 병행하면서 하루 강의시간이 다시 5시간으로 증가했는데, 만족도가 다시 떨어졌다.

[표 8] 연도별 문항별 수강생 만족도

년도	2019 여름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2022 여름	2022 겨울	평균
언어 교육 수준과 방법	4.20	4.60	4.79	4.83	4.91	4.84	4.70
교재의 적절성	4.44	4.64	4.32	4.44	4.89	4.74	4.58
총 강의시간	3.92	4.64	4.66	4.67	4.77	4.74	4.57
하루강의 시간	3.16	4.69	4.66	4.17	4.57	4.61	4.31
본인언어능력 신장	4.32	4.64	4.84	4.78	4.80	4.84	4.70
다음번 강의 참여	4.32	4.60	4.76	4.83	4.43	4.55	4.58
평균	4.06	4.59	4.67	4.62	4.73	4.72	4.57

이와 연동된 것으로 ‘총 강의 시간’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4.57점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여름이 가장 낮았고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4.65점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강의시간의 경우 2019년 여름 캠프에서 50시간을 진행했는데 강사와 수강생들이 구두로 피력한 의견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0년 여름부터 40시간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2021년 동계 때에는 학점교류가 병행되어 45시간으로 다시 늘리게 되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 언어 강의 총 시간은 45시간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족도 조사의 핵심 질의라 할 수 있는 언어 교육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높게 집계되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본인 언어 능력 신장으로 연도별 평균이 4.70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4.63

점으로 다음번 강의에 참여하겠다는 항목이었다. 언어 교육 수준과 방법이 4.61점으로 나타났는데, 수강생들은 대체로 강사의 언어교육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언어능력이 신장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방형 서술식 문항에서도 강사의 교수법이 좋았다거나 강의에서 보인 열정이 좋았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V. 과제: 미국형(원본)과 한국형(사본) 비교 분석

(1) 언어교육의 양적 질적 강화

한국형 언어캠프의 설계와 추진을 위해 참조할만한 모범적 선례로 간주되었던 미국의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를 거울삼아 보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제는 언어교육의 양적 질적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언어캠프의 핵심은 언어교육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선, 강의 시간을 양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캠프는 2주 45시간의 언어교육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강생들이 여름과 겨울 캠프를 이어서 참여하면 연간 4주 90시간을 교육받을 수 있다. 미국의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 언어교육이 8주간 160시간인데 비하면 적은 편이다.⁶⁾ 따라서 언어 교육 시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수강생들의 부담감도 극복해야 한다. 대학원생과 대학원지원자가 수강생의 절반 이상인 미국 여름학교(정은숙 2023: 11, 표 3)와 달리 학부생이 주축인 한국 캠프에서 강의

6) SEASSI(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홈페이지. <https://seassi.wisc.edu/>

시간 증가는 아직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미국 여름학교가 8학점을 부여하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장시간 언어교육이 가능한 비결일 것이다. 부산외대와 전북대는 학점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캠프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격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참여 학교들도 부산외국어대와의 학점교류 협정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언어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상황에서도 추구될 수 있다.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는 교수법 강화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고 한다. 문법만이 아니라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모든 방면의 언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적절히 제공하고 수업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수한 강사를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현지에서도 초빙해온다(정은숙 2023: 9-10). 현지 교원 초빙은 불가피한 대책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동남아연구 역사가 긴 대학조차 수강생들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동남아언어를 개설할 수 없었고, 따라서 동남아언어 강의가 가능한 미국내 교원의 채용도 줄게 된다(Southeast Asian Program 2000: 21). 국내 강사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현지 교원을 초빙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불가피성을 우리도 직면하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캠프는 미국과 달리 캠프 운영 기관과 강의 제공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수강생 모집과 관리는 전북대가 책임지지만 교수법 강화는 부산외대의 몫이다. 양 측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떠한 의제도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교수법 향상도 더 빈번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우리 캠프에서 초급과 중급을 이어서 수강하는 캠프 수강생들이 중급 진입의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급반의 강의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강의 초반에 초급 내용을 복습시키고 시험을 통해 수강생 실력을

파악하여 강의 수준을 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된 바 있다. 미국 여름학교처럼 우리 캠프도 레벨 테스트를 제도화하면 좋겠다(정은숙 2023: 9).⁷⁾

초급과 중급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수강생의 노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료 인정 기준은 주로 출석률이었는데, 실력 향상을 향한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더 자극하려면 퀴즈나 시험을 수료 인정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동남아언어 실력의 등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제도가 발달해야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인정시험제도를 소개하고 응시를 권장하면 수강생들에게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될 수 있겠고, 공인된 시험제도가 없다면 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⁸⁾

(2) 교육 제공 언어 추가

미국 여름학교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 캠프에서 강의가 제공되는 언어가 더 적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라오어, 자바어, 몽어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에서 자바어 교육이 가능한 비결은 현지인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이다. 자바 출신 인도네시아 강사를 초청하여 인도네시아어와 자바어를 모두 강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몽족 난민이 많은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 몽어 교육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라오어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 5개년 계획

7) 2022년 겨울캠프는 때 중급반 신청자들의 언어수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전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였고, 4개 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탈리아어)는 여름 강사진이 그대로 참여하도록 하여 언어 교습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8) 한국외국어대 FLEX센터가 개발한 ‘특수외국어능력평가’는 2020년부터 개인들에게 개방되었다. 연 1회 개최되는 특수외국어 시험에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아랍어 등이 포함되었다. <https://flexcfl.hufs.ac.kr/>

2단계에 중점 언어로 포함되었고 부산외국어대가 책임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우리 캠프에서도 곧 개설될 전망이다. 물론 양질의 언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라오어 강사를 찾는 과제는 남아 있다.

다음 문제는 수요와 만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어(크메르어) 수강생을 해마다 모집했지만 지난 3년간 개설될 수 없었다. 가끔 두 명 정도가 신청할 뿐이었다. 미얀마어(버마어)도 작년에 개설될 수 없었다. 미국의 2021년 여름학교 때 버마어 등록생은 15명이었고 크메르어 등록생은 19명이었다(정은숙 2023: 10). 이런 등록 규모의 미국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2주간 기숙하며 버마어와 크메르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요를 접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여름 캠프 때 필리핀어(타갈로그어) 강의를 개설한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 지정 중점언어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필리핀어(타갈로그어)는 개설 전망이 어두웠다. 그런데 필리핀국립대학 한국학센터 배경민 선생의 제안으로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현지인 강사를 섭외하고 화상 강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필리핀학 육성에 관심이 많은 김동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장으로부터 강사료 지원도 받았다. 실험적으로 2주간 오전 2시간씩 20시간만 교육하기로 했는데, 13명이 신청하여 12명이 수료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수강하였다.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74점을 받았고 특히 언어교육 수준과 방법은 4.9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족도 조사에서 여러 수강생들이 현지인 강사의 열정적인 수업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교재에 대해 호평했다. 개설 가능한 규모의 수강생 모집에 실패하고 있는 미얀마어와 캄보디아어 강좌도 필리핀어 강좌의 실험 성과를 참고하여 화상 강의 방식으로 개설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3) 이주민 자녀 포괄

미국의 동남아학계에서는 이주민 자녀들을 포괄할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중시하였다. 미국 대학에 정착한 현지 출신 학자들의 동남아 연구 발전에 대한 기여가 매우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Southeast Asian Program 2000: 19-20, Charles Keyes의 발언), 동남아에서 건너온 이주민 자녀들도 동남아교육과정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동남아 이주민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신이 살았던 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면서 미국 대학의 아시아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다. 이른바 “헤리티지 스피커”(heritage speakers)라는 이들이 동남아 교과 수강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Southeast Asian Program 2000: 38-39, Anthony Reid의 발언). 이주민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를 말할 수 있으나 쓰기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동남아언어여름학교에 참여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이민자 가정 학생이 미국 여름학교 등록생 전체의 21%에서 36%로 증가했다는 것이다(정은숙 2023: 12).

우리 대학은 아직 미국처럼 되진 않았다. 동남아 출신 한국 유학생들이 박사학위를 마친 뒤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드물고 동남아 출신자와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가정(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다수가 여전히 초중등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동남아학계와 언어캠프 운영자들은 미리 대비하고 조기 교육을 제공해서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가정의 소통이 이중언어적으로 변하면서 가내 ‘언어 권력’이 균형을 이루게 것이고, 외국어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인정받으며 자긍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전북대신문 2019/05/10).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 모두에 능통하게 된다면 자녀 개인의 진학과 진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나라들을 잇는

가교 역할의 인재로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출신 이주민 자녀들이 아시아지역연구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처럼 한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동남아연구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캠프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은 2019년 출범 때부터 있어왔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 특히 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고교생의 참여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전라북도 다문화지원팀이 연결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라는 것이다. 부안에서 2명의 다문화 가정 고교생이 여름캠프에 수강을 신청했었지만, 기숙사 비용만 지원하고 식비 지원이 불가하자 수강을 포기하여 아쉽게 되었다.

그래서 방향을 전회하여 이중언어강사과정을 밟는 동남아출신 이주여성들을 교육하기로 했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중개하여 부산 외대와 전북도청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에 체결하였다. 체결 이후 2023년 1월 2주 동안 베트남어 이중언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어교수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참여한 베트남출신 한국 국적 어머니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홍민희 2023). 도내에서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동남아출신자는 2022년 기준으로 베트남인 19명, 캄보디아인 6명, 필리핀인 4명, 태국인 1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들은 강사양성과정에서 언어학적 지식과 교수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추가(보수)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 수요와 언어캠프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

(4) 교류와 체험 기회 제공

동남아학회가 따로 없고 아시아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만 있는 미국의 동남아학계는 동남아언어어음학교를 동남아 관련 학술회의와 문화전시의 장으로 만들었다(Southeast Asia Council 2000: 30, James Scott의 평가). 풍부한 부대 행사는 동남아 언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총체적인 지역지식을 선사하며 학습 동기 신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었다. 부대 행사는 환영 파티, 동남아 연구 학자들의 특강, 학생논문발표회, 인도네시아전통합주 가믈란(gamelan) 실습, 동남아언어의 시 창작 낭송, 동남아 음식 나눔 파티, 분반별 배구대회, 환송 파티 겸 언어반별 장기자랑(일명 SEASSI의 밤) 등 실로 다양했다(정은숙 2023: 12-15).

반면에 한국형 언어캠프는 부대 행사가 그다지 다양하지 못했다. 동남아학자들의 특강, 영화상영, 대학원 진학설명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분반별 회식과 대학원생 교류의 밤은 한 차례씩 시도되었을 뿐이다. 캠프 만족도 조사에서 수강생 교류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자금이나 여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엔 수업과 특강을 마스크 쓰고 거리 두면서 듣게 할 뿐 문화 행사나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캠프 방식의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중에 하나는 같은 공부를 하는 이들과 친교를 형성하는 것이다. 캠프는 동남아언어를 학습하려는 공통의 관심과 취향을 지닌 동년배들이 서로 반기고 격려하며 동행하는 친교가 맺어지는 장이어야 한다. 특히 동남아연구를 지망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평생 이어지는 학술적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운영진은 수강생들끼리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금과 여력이 된다면, 동남아출신 유학생이나 이주민들과 동남아 언어캠프 수강생들이 교류할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언어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현지인들과 현지의 음식이나 차를 나누며 현지어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수강생들은 배운 말을 실제로 구사해보고 현지의 문화도 접하는 기회를 누리고, 동남아 출신 유학생이나 이주민은 자기 언어를 애써 배우려는 희소한 한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5) 더 적극적인 홍보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는 최소 4개월 전부터 홍보에 돌입한다. 우리 언어캠프는 한 달 반 정도를 앞두고 홍보를 추진한다. 미국 여름학교가 정규 교과로 8주간이나 진행되고 전국 60여개 대학 학생들이 참가하므로 공고를 일찍 할 필요가 우리보다 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더 일찍 계획을 공지하여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미리 세워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즘 학생들은 방학 활동에서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의 상당히 중요한 기반은 교육부의 외국어및지역연구(FLAS: Foreign Language and Area Studies)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참여이다.⁹⁾ 이 장학금은 주요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어 학내 신청 및 경쟁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학금 지원자 모집 기간에 동남아언어를 홍보하는 행사를 갖는 경우가 있다. 코넬대학은 동남아언어주간(Southeast Asia Language Week)을 정하고 언어별 회합 공간에 온 학생들에게 언어의 특성을 안내받고 체험할 수

9)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2.ed.gov/programs/iegpsflasf/index.html> (검색일: 2023/04/19)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남아의 커피나 전통 차를 마련하고 티셔츠나 펜던트도 나눠준다. 올해는 동남아언어주간 때 미국의 동남아 출신 음악인들의 공연과 미얀마 유학생회와 함께하는 평잔(미얀마 신년) 축제가 열렸다.¹⁰⁾ 이러한 행사는 동남아언어 학습동기를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여름학교 수강생 모집에 기여할 수 있다. 전북대도 동남아연구소도 학내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과 함께 동남아언어주간을 마련해볼까 했으나 논의만 무성했을뿐 성사시키지 못했다.

적절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려면 캠프 수강생들의 정보 획득 경로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표 9>는 수강신청자들이 언어캠프를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경우는 대학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한 것이었다. 캠프 수강신청자의 50% 이상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캠프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답하였는데, 전북대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각 대학 본부에 공문을 보내고 교내의 온라인 정보 회람 같은 홍보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부착된 포스터를 통해 캠프 정보를 보고 신청한 경우는 줄고 있는 반면에 SNS를 통해 개최 소식을 접하고 신청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공지를 더욱 강화하는 홍보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캠프의 주요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므로 페이스북 공지만이 아니라 청년층이 애용하는 매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조직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펼쳐져야 한다.

10) Mario Einaudi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https://einaudi.cornell.edu/discover/news/southeast-asia-language-week>. (검색일: 2023/04/18)

[표 9] 언어캠프 유입경로(%)

항목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2022 여름	2022 동계	평균
대학 사이트 공지사항	38.3	82.1	33.0	52.3	54.3	38.7	50.4	49.9
기관 및 교수 권유	36.7	12.8	25.0	30.7	20.2	26.4	27.0	25.5
페이스북	5.0	0.0	11.0	10.2	16.0	15.1	12.2	9.9
지난 언어캠프 참여	0.0	5.1	7.0	6.8	9.6	11.3	18.3	8.3
지인 권유	3.3	0.0	5.0	0.0	12.8	4.7	4.3	4.3
오프라인 포스터	16.7	0.0	7.0	6.8	0.0	1.9	4.3	5.2
언론기사	0.0	0.0	0.0	2.3	0.0	2.8	0.0	0.7
기타*	0.0	0.0	0.0	0.0	0.0	11.3	4.3	7.8

* 카카오톡 단톡방, 언어 맛보기 유튜브 등

두 번째로 많은 정보 접수 경로는 기관이나 교수의 권유였는데, 주로 UNSEASK 위원이 속한 대학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즉, UNSEASK 소속 교원들의 캠프 홍보와 권유가 캠프 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공감하고 움직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교원을 접촉하여 캠프 취지에 동의하는 UNSEASK 위원을 더 충원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동남아언어 ‘맛보기’와 캠프 설명회를 2021년 겨울캠프와 2022년 여름캠프를 앞두고 화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2021년에 인도네시아어의 장점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어 수강생을 늘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 간 개최하고 캠프에서 개설되는 모든 언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직접 20분간 소개하는 이른바 ‘언어 맛보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남아 언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구사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고, 캠프 진행

계획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하는 홍보의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각 언어 소개 강연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모집 기간 동안에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박명기 2022a, 2022b).¹¹⁾ 이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언어교육은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극소수 대학에서 제한된 언어만 교육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지역들이 여전히 특수외국어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전문적으로 교육할 강사가 희소하고 배우려는 학생도 적은 상황에서는 미국 동남아언어여름학교처럼 전국의 학생들을 모아 방학 중에 집중 교육하는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었다.

국내 대학의 동남아언어 집중교육은 전북대와 부산외대가 협력하여 2019년 7월에 처음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부산외대와 전북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의 구성원들의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2주간의 방학 중 언어캠프는 지난 4년 동안 일곱 차례 개최되었다. 429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였고 이들의 소속은 실로 다양했다. 40개 대학 소속원이 참여했으며 변호사, 활동가, 기자, 고등학생도 수강했다. 언어캠프에서 개설한 언어는 6개 동남아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와 아랍어, 이탈리아어, 터키어였다. 캠프 2년차부터는 90% 이상의 수료율을 보

11) <https://www.youtube.com/@jiseas7539/videos>. (검색일: 2023/04/15)

여 총 380명이 수료증을 받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7점이며 최근의 캠프에 이를수록 만족도가 상향하였다.

언어캠프의 ‘원본’이라할 수 있는 미국의 동남아언어여름학교와 비교했을 때 과제도 분명해졌다. 첫째, 언어교육의 양적·질적 강화의 필요성이다. 언어교육 시간 증대, 교수법 강화, 동남아언어능력시험의 활용 및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 제공 언어 추가 방안의 모색이다. 라오스어 추가 개설과 더불어 수강생이 적어 개설이 어려운 캄보디아어나 미얀마어는 화상 강의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주민 자녀들의 포괄이다. 언어캠프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은 캠프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남아출신 이중언어강사 보수교육을 통하여 이주민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대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류와 체험 기회 제공의 확대이다. 수강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동남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더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홍보 전략이 구사되어야 하고 홍보 기간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외국어 교육의 효과성은 캠프 방식으로 집중형 교육을 시행하더라도 현지 언어연수에 비하면 효과가 적다. 현지에서는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나 생활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남아연구자들도 이런 점에서 현지 언어 연수(in-country studies)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Southeast Asian Program 2000). 호주 외교통상부는 뉴콜롬보플랜(New Colombo Plan)을 통해 많은 청년들을 인도·태평양 각지로 현지연수를 보내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²⁾ 한국동남아학회는

1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bout New Colombo Plan.” <https://www.dfat.gov.au/people-to-people/new-colombo-plan/about>.

한아세안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을 활용하여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8년간 연인원 94명의 대학원생들의 장기 현지조사를 지원했으나(안청시·전제성 2019: 11), 아쉽게도 최근 7년간 중단된 상태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언어캠프 학습을 현지 언어연수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 초급과 중급을 넘어서는 수준의 언어 학습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내에서 외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영어 교육이나 외국인 및 이주민 상대의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들이 주종을 이룬다. 교육이 희소한 언어들은 교육 전략에 관한 연구도 희소한 형편인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의 연구가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남아시아언어처럼 교육적 측면에서 소수 언어라 할 수 있는 언어들의 교육 관련 연구는 효과적인 교수법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제공 및 실현 전략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즉, 제한된 공급과 희박한 수요가 만나는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연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강좌가 개설될 수 없다면 교수법이나 교육공학 연구는 가치를 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학 캠프라는 실험을 소개하고 분석한 우리의 연구가 동남아지역연구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한계를 안고서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추구하는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특수/소외’ 지역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확산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방학 캠프형 집중 교육 방식의 유용성을 실천 경험에 근거하여 주장한다. 소중한 국고가 투여되고 우리나라 해외지역연구 인재육성에 긴요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우리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통계서비스. 2021. “2021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검색일: 2022. 03.15.)
- 국립국제교육원. 2017.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 _____. 2021.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 2026] 기본 계획.”
- _____. 2022. “2022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안).”
- 국제신문. 2019. “부산외국어대, 전북대와 특수외국어 관련 학술교 류 협정 체결.” 2월 28일.
- 김다혜 · 김현경 · 전제성. 2021. “동남아언어캠프 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계획한다.” 전동연 이슈페이퍼 20호,
- 김연우 · 송연재 · 정승은 · 이재원 · 강하니. 『강을 잃어버릴 우리에게』. 발전대안 피다. 2020.
- 김현경. 2013.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Pendidikan Kewarganegaraan) 의 문제: 교과서와 교실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전북대 정치 학 석사학위논문.
- 박명기. 2022a. “부산외대 배양수-윤종태-이미지-윤용수 교수가 전 북대 간 이유는?” 아세안익스프레스. 5월 31일.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7759>
- _____. 2022b. “전북대 언어캠프서 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어 배워봐요.” 아세안익스프레스. 6월 1일.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7760>
- _____. 2022c. “‘동남아언어캠프’ 3년만에 위상 우뚝...전북대-부산외 대 ‘찰떡궁합.’” 아세안익스프레스. 7월 26일.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7861> (검색일: 2023.

05.11.)

- 박정경. 201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아프리카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5: 61-87.
- _____. 2021.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에서의 스와힐리어 학부 교육 내실화 과정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2: 45-72.
- 송재. 2021. “라마 3세 시기(1824-1851) 방콕 상좌부 불교사원의 博古圖 벽화에 관한 연구: 왕실사원 ‘왓 라차오룻’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환. 2010. “외국어 집중교육 프로그램.” 이성형 외. 『해외지역 연구의 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연구』. 한국연구재단. 부록 11.
- 안청시·전제성. 2019.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우춘희. 2022. 『갯잎 투쟁기』. 서울: 교양인.
- 이성형·신윤환·송주명. 2010. 『해외지역 연구의 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 이인모. 2022. “他대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 ‘상생의 시대’ 견인.” 『동아일보』 2월 15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15/111789833/1> (검색일: 2023. 05.11.)
- 전대성. 2021.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40-64.
- 전북대신문. 2010. “‘슬라맛 빠기’ selamat pagi 인도네시아어 배우요.” 4월 14일.
- _____. 2019. “우리 올 여름에는 동남아 말을 배우기로 해요.” 5월 10일.
- 전제성·박사명·김현경. 2021.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

- 과정: 현황과 대안.” *동아연구* 40(1): 1-32.
- 전제성 · 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55-297.
- 정은숙. 2023. “미국의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 역사, 성과 및 함의.” *전동연 이슈페이퍼* 24.
- 정정훈. 2017. “발리 우붓 지역 관광발달과 전통의 재구성: 뉴꾸닝 주민의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전북대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
- 하채균. 2018. “한-아세안 협력의 ‘약한 고리’: 한국의 동남아시아 교육.”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토크* 2018-07.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특수외국어능력평가. 2023. “2023년 제1회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험요강.” <https://flexcfl.hufs.ac.kr/> (검색일: 2023.05.11.)
- 한-아세안센터. 2022. 『2022 한-아세안 통계집』. 한-아세안센터.
- 홍민희. 2023. “전북 결혼이민여성들 ‘이중언어 강사’로 제2의 인생.” 『*전민일보*』 1월 31일.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030>.
- Platt, Martin. 2006. “The Academic’s New Clothes: The Cult of Theory versus the Cultivation of Language in Southeast Asian Studies.”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outheast Asian Program,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00. *Weighing the Balance: Southeast Asian Studies Ten Years After*. Proceedings of Two Meetings Held in New York City, November 15 and December 10, 1999.

웹사이트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융·복합연계전공.

<https://eams.jbnu.ac.kr/eams/index.do>.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bout the New Colombo Plan.” <https://www.dfat.gov.au/people-to-people/new-colombo-plan/about> (검색일: 2023.05.11.)

Mario Einaudi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https://einaudi.cornell.edu/discover/news/southeast-asia-language-week>. (검색일: 2023.04.18.)

SEASSI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https://seassi.wisc.edu> (검색일: 2023.04.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2.ed.gov/programs/iegpsflasf/index.html> (검색일: 2023.04.19.)

(2023.04.25. 투고, 2023.04.25. 심사, 2023.05.15. 게재확정)

<Abstract>

The Performance and Challenges of Southeast Asian Languages Education through the Vacation Intensive Course

Dahye KIM, Hyun Kyoung KIM, and Je Seong JE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SEASK (Southeast Asian School in Korea), co-organized b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arted in the summer of 2019 and was held seven times over four years. The two-week intensive courses were conducted as face-to-face classes every ti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to five Southeast Asian languages (Vietnamese, Indonesian, Thai, Burmese, Tagalog, and Khmer), Arabic, Turkish, and Italian were also taught at the vacation camps. 429 students, includ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40 universities nationwide and scholars, activists, lawyers, and journalists, took the course. Many people have shown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SEASK and requested a more detailed introduction. Now is the time to review the experiments of the past four years. This paper is about the background, proces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SEASK.

Key Words: Southeast Asia, education, critical foreign language, SEASK, SEASSI

